

큰스님 수행한담

“인간의 몸 받았을 때

국봉스님 (해인사 용담선원 한주)



- 1919년 전북 군산생
26년 전남 백양사에서 前조계종
중종 고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나주 다보선원, 부산 범어사,
오대산 적멸보궁 등 제방선원과
기도처에서 정진
現 대구 금강사 주석

저는 조실부도했습니다. 전주 위봉사
주지스님이셨던 선친이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어머니도 절에 머무
를수가 없어서 멀리 떠나버리셨어요. 어
린 저는 운명처럼 동지성이 되었는데 태
어날때부터 계속 절에 있었으니 동진출
가라기보다 태생출가라고 하는게 더 맞
겠지요?

여덟살의 나이에 백양사에서 조계종
중종을 역임하셨던 고암스님 한테 맡겨
졌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스님이 저를
보고는 “동글동글하게 참 잘 생겼구먼.
내가 데려다 키워보겠다”며 일본에 데려
갔는데 실사 탁발을 하더라도 교동이 편
리하고 의복이 발달해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내복
도 없는 시대여서 영하10도가 넘는 한겨
울에 탁발을 갔다오면 손발이 부르뜨기
가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스님
들이 다른 잡념이 없었고 참으로 수행자
다웠습니다.

그때 비하던 요즘 스님들은 육체적으
로 편하게 지내는 반면 여러면에서 참으
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주변
생활이 단순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배울
것이 많고 관리할것도 많으면 도를 닦기
가 힘들어집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보고자 하는 것
이 선(禪)인데 인연관계가 복잡해서
는 생각을 들고 있어야되니 어느 세월에
도를 깨치겠습니까?

이왕지사 출가의 인연을 만났으면 모
든 것을 접어두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게
상책입니다.

현재 제가 머무르고 있는 금강사는 저
의 사제인 청수스님이 가문 도량입니다.
한 5년전부터 겨울이 되면 해인사가 너
무 추워서 밤에는 화장실 다니기가 힘들
고 해서 이곳에 와서 한철을 보내고 있
습니다. 참 고마운 인연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있을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소화가 계통에 이상이
생겨 음식을 잘 못먹고 있습니다. 달도
차린 기운과 꽃도 피었다 지는것처럼 제
육신도 이제 거동할 수 있는 날들이 얼
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실감합니다. 이제

정말 갈때가 가까운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러 생사가 여일(如一)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갈걸 뭐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단말인
가?”고 탄식하며 후회해봐야 때는 늦습
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인간
은 몸이 없으면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 조사스님들은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두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깨달
음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추구한다고 해
서 쉽게 이뤄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 중생들은 고집과 미망을 버리지 못하
고 발버둥치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니 안
타까운 노릇입니다.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은 평소 수련을 게
을리하면 잠을 자다가도 발뼀 일어나 감
쪽 감쪽 놀리며 스스로의 나태함과 계으
름에 대해 자책하게 마련입니다.

어렸던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비로소
고암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는데 그제서
야 겨우 스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 뒤로 나주 다보선원에서 고암스

“우리 모두가 부처의 현현
이 도리 믿고 실천하면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어요”

남을 시봉하면서 30여년 살았습니다.
고암스님은 자비보살의 화신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조계종 중종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고 전계대화상까지 맡으
셨으면서도 태산준령같은 이미지가 아닌
호수같은 이미지를 남긴 분입니다. 명경
지수와의 같은 맑고 깨끗한 행적을 보이
셨으면서도 참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스
승이었습니다.

한편은 다보사에서 보살계를 할 때였
습니다. 그때만해도 절에 전기가 들어오
지 않던 시절인지라 어느 여신도가 방죽
에 마지그릇을 요강으로 착각하고 용변
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침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절이 발칵 뒤집혔습니
다.

그러나 이일을 전해들은 스님은 여신
도를 불러놓고는 “부처님이 보살님 복짓
게 할려고 그런 모양이니 새 마지그릇을
사오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수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던 여신도
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수
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사스님은
늘 자비심으로 불자들을 감화시키는 자
비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6.25전쟁때 스님을 모시고 군산으로 피
난을 가는데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긴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는 인민군의 손아
귀에 있었는데 맞은바나 검문에 걸려 조
사를 받았지요.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묻는데 하느수 없습니
까?

“좋다고 할 수밖에는요. 한마디만 까딱 잘
못했다가는 불잡혀서 어떤 불행을 당
할지도 모르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런 상
황속에서도 은사스님은 침착함과 부드러
운 자비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6.25가 끝난직후
부산 범어사로 갔습니다. 당시 범어사
는 동산스님이 조실로 계셨는데 고암스
님과 같은 사형사제간이지요. 두분은 독립만
세운동을 주동한 33인중의 한분이신 용

다시 보는 명서

선경어(禪警語) ③

做工夫 不可在古人公案上
주공부 불가재고인공안상
卜度 妄加解釋 縱一領略得過
복탁 망가해석 종일일령락득과
與自己交涉 殊不知古人一語一言
야자기물교섭 수부지고인일어일언
如大火聚 近之不得 促之不得
여대화회 근지부득 촉지부득
何況坐臥其中耶 更于其中
하황좌와기중야 강우기중
分大小 論上論下
분대분소 논상논하
不喪身失命者幾希
불상신실명자희

若將此 時時驚策 工夫自然得上
약장차게 시시경책 공부자연득상

참선하는 사람은 문구(文句)에 매달
리거나 신기한 말에 팔리지 말아야 한
다.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 진실한 공부도 도리어
망상이 되니,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
을 얻으려 한들 되겠는가.

참선하는 데에 비교하여 헤어져서
알고자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
다.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도와는
더욱 멀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미혹불
이 출현할 때까지 한다 해도 전혀 소
득이 없다. 만약 의정(疑情)이 문득
일어난 자라면 마치 철벽은산 안에서
오직 살길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과 같아야 할 것이다. 만약 살길을 찾
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렇게 정진한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와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황벽선사께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마음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쓸
지이다. 찬바람이 한차례 뼈에 사무치
지 않을들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을 맡겠는가.” 하셨으니 이 말씀
이 참으로 친절하다. 만약 이 계승을
가지고 때때로 경책한다면 공부는 자

참선하는 사람은 조사의 공안(公案)
을 생각으로 헤아려 짐작으로 해석해
서는 안된다. 실사 날날이 해석하여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本分)과
는 아무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조
사의 말 한마디 글 한 귀절은 마치 큰
불덩이와 같이 가까이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가
거나 누울 수 있겠는가. 더우기 그 가
운데서 누고 작은 것을 따지고 좋고
나쁜 것을 논한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做工夫 不可尋文逐句 記言記語

문구에 매달리면 공부도 망상되고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도와 멀다

주공부 불가심문축구 기언기어
不但無益 與工夫 作障礙 眞實工夫
부단무익 여공부 작장애 진실공부
返成緣慮 欲得心行處絕
반성원려 욕득심행처절
豈可得乎 做工夫 最怕比量 將心湊泊
기가능하 주공부 최파비량 장심진박
與道轉遠 做到彌勒下生去
여도전원 주도미륵하생거
管取沒交涉 若是疑情
관취沒交涉 악시의정
頓發的漢子 如坐在鐵壁银山之中
돈발적한자 여좌재철벽은산지중
只要得箇活路 若不得箇活路
지요득개활로 약부득개활로
如何得安穩去 但處處做去
어하득안온거 단임머주거
時節到來 自有箇斷斷
시절도래 자유개도단
黃葉禪師云 塵勞迥脫 事非常
황벽선사운 진로형탈 사비상
緊把頭頭做一場 不是一翻寒徹得
긴파두주일장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此語最親切
쟁득매화박비향 차어최친절

연히 상승할 것이다.

做工夫 最要緊 是箇切字 切字最有力
주공부 요회긴 시개절자 절자최유력
不切則懈怠生 懈怠生則放逸縱寬
부절즉해태생 해태생즉방일종의
靡所不至 若用心真切
미소부지 악용심진절
放逸懈怠 何緣得生 當知切之一字
방일해태 하요독생 당지절지일자
不怨不到古人田地 不怨生死不破
불수부도고인전지 불수생사불파

참선에는 ‘간절함’이 한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절함은 무엇보다 힘이 있
다. 간절하지 않으면 계으름이 생기고
계으름이 생기면 제마음대로 방종해져
서 못할것이 없게 된다. 만약 마음을
쓰이 참되고 간절하면 방종하고 계으름
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간절
하다는 이 한 마디만 알면, 옛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
도 없고,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근심할 것도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마하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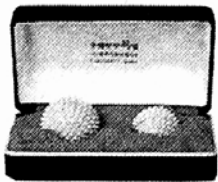
새천년 맛이 추천 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보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
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
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
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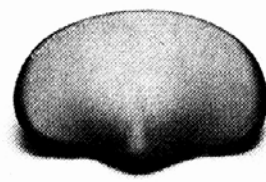
대나무 숲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
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
니라 숲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마천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
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숲을 가까이 하길 추천한 것이 숲
염색천입니다. 숲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
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
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
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 자세 건강방식 참선명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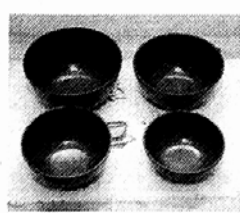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
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실
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띠고 건강하게 생활
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
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용
기로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용원의 철저한 고증
을 거쳐 제작한 외발우(外鉢盃)이다.

■가 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화엄변상도 (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부고 예술의 결정
(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
장 완본(完本)을 순한지인 영담선지(影潭禪紙)와
복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
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가로) X 23cm(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80장 원본
2.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영본
3. 19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원상 및자 주석
(前 海인사 佛主 現 海인사 佛主 現상 佛主 佛主 佛主)
4. 전통화지의 특수 잉크를 활용하여 제작함
회교의 순한지(純韓紙) 영담선지(影潭禪紙)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역자본 복사, 또는 화엄명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경 변상도는 100세트 한정판입니다.

■가 격 : 각 330,000원

불자 반야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16개의 큐빅은 보
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
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광정도
정견(定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심육대륙력(十六大力)
지력(智力), 의력(意志力), 행력(行力), 참력(耐力), 강력
(強力), 지력(持力), 해력(解力), 덕력(德力), 변력(辨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향마력(降魔力)
■용량: 16개 큐빅/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가 격: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16개 큐빅/금 15 돈